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성경: 사무엘상 10장 1-9절
(Tag:)

1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2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나민 경계 쉼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를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3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디볼 상수리나무에 이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뵈오려고 벤엘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진 자라

4 그들이 네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5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 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6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7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8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칠 일 동안 기다리라

9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 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삼상10:1-9)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변하여 새사람이 된다.

기독교인이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변하여 새 사람이 된 사람들, 그래서 성령의 사람, 성도가 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그러므로 모든 기독교인들은 성령을 받아야 하며,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새사람이 된다.

우리가 원래 지음받은 때처럼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죄와 저주로 인해서 우리에게서 성령이 떠나갔고 인생은 방황의 연속이 되었다. 하나님은 이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마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 민족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셨다.

그 약속을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리 알게 하셨고, 결국 마지막에는 세례를 베푸는 자 요한이라는 예언자를 보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지목하여 저가 하나님의 어린양, 메시아라고 선포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3년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을 왕래하면서 천국복음을 선포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3일만에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셨다.

제자들을 가르치는 내내, 승천하시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성령이 오실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셨고, 정말 승천하신 지 10일만에 성령이 임하셨고, 드디어 교회가 시작되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음으로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 죄사함의 복음, 사랑의 계명을 땅끝까지 전파하

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고,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천년동안 다스리시다가 마지막 날에는 마귀를 영원히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에 첫 번째 왕이 된 사울에 관한 말씀인데, 선지자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세우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구약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정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사울도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인데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찾아 헤메다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려고 하였다.

그 전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낼 것인데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라 하셨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하나님은 이 사람이 내가 네게 말한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

사울은 암나귀의 일로 선견자를 찾았으나, 사무엘은 암나귀의 일은 걱정하지 말고 오늘은 나와 더불어 식사를 하고 내일 아침에 너를 보내리라 하였다.

사무엘은 그날 밤이 늦도록 사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음날 아침에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는다. 그리고 그 증거로 예언을 한다. 네가 라헬의 묘실에 이르면 두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들이 네게 암나귀를 찾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다볼 상수리나무에 이르면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한 사람은 염소 셋을 이끌고, 한 사람은 떡 세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졌는데, 그들이 네게 문안하고 떡 두덩이를 줄 것이다.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를 것인데 산위 성읍에서 선지자의 무리가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면서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인데 그때 너에게 여호와와 신이 크게 임하게 되어 너도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임하거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7일을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네게로 가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리라 하였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셨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 사울도 인간적인 약점들로 인해서 무너지기 시작한다. 맨 먼저 그는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였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는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 하다가 망령된 짓을 행한다.

그 뒤에 또 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또 한번의 실수를 범한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신 명령을 어기고 진멸하지 못한다. 이때는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다.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은 그에게 다윗을 붙여주어 위기들을 모면하도록 하신다. 그러나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시기하는 실수를 범하고 여러 차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전쟁터에서 자결함으로 생을 마감하고 만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았지만 인간적인 실수를 극복하지 못하고 멸망하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나약하고 실수가 많다는 것을 잘 아시고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계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유지하게 된다.

오늘날에도 이단들은 온갖 거짓말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심지어는 거짓 선지자 노릇도 서슴치 않는다. 누가 꿈을 꾸었다고 하면 쉽게 넘어가고 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거짓말도 믿으며, 누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 사랑에도 쉽게 속아 넘어가서 심지어는 가족도 버리고 만다.

(성경의 예언은 구체적이며 건강하고 해답이 된다. 애매하지 않다. 무당의 예언은 두루뭇술<두리뭇실> 하거나 아전인수격인 해석이나, 아니면 말고식 예언, 상식이나 원칙에 어긋난다. 심지어는 건강한 정서에도 어긋난다. 분명하게 그 결말이 거룩하지 못하고 누추하고 비굴하며 두려워서 내리는 결론이 된다.)

그러자 한국 기독교 율법주의자들은 꿈이니, 환상이니, 예언이니, 계시니, 방언이니, 은사니, 방언통역이니, 심지어는 병고침이나 위로나 권면까지도 모두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경말씀만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웃지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성경에 모두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도 그런 성령의 은사들은 성경시대에만 있었지, 성경이 완성된 AD300년 경 이후에는 그런 성령의 은사들은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방언은 모두 마귀 방언이라고 한다. 마귀 방언이 있을 수 있고, 거짓 방언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랑도 거짓 사랑이 있으며 심지어는 성경해석도 거짓 성경해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건강한 것은 성경말씀도 지키며 은사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구데기 무섭다고 장 담그지 않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 은사의 영역을 이단들에게 빼앗길 것인가? 왜 은사의 영역을 악한 영들에게 내어줄 것인가? 은사의 영역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왜 그 영역을 거짓말쟁이들에게 내어주는가? 왜 율법주의자들에게 내어주는가?

우리는 오늘날에도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오늘날에도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 세레 요한과 같은 선지자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이 나라를 향한 구체적인 예언을 해 줄 예언자를 많이 보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

거룩한 예언의 영을 받아야 할 많은 사람들의 은사가 마귀에게 유린당하고 있지 않는가? 그들이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어야 하며, 우리도 변하여 새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령이 임하면 예언의 영이 활성화 된다는 것은 구약성경에도 이미 예언되어 있다.

28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욘2:28)

우리는 영적으로 새사람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새사람이 되어야 하고, 정서적으로도 새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성적으로도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영적으로 새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은사와 삶의 목적에서 거룩해져야 한다는 뜻이다.

도덕적으로 새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십계명을 목숨같이 지키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정서적으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정을 거룩하게 하고 자녀들을 담대한 아이들로 잘 키워내야 한다.

이성적으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창조하신 진리의 영, 성령의 가르침과 깨우침을 잘 따라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세계복음화에 앞장서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들의 백합화는 어떻게 자라는가 성경: 마태복음 6장
19-34절 (Tag:)

19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22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23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2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26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7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28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30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마6:19-34)

1. 보물이 무엇일까? 당신의 보물은 무엇인가?

-부동산인가? 돈인가? 주식인가? 귀금속인가? 일터인가? 자녀들인가? 지식인가? 인맥인가? 권력인가? 결혼인가? 건강인가? 잘사는 것인가?(잘 먹고, 잘 놀고, 쾌락을 누리는 것인가?)

-당신은 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있는가?

2.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은 무엇인가?

-헌금을 위해서 합리적인 자금관리를 하는 것.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성경공부에 힘쓰는 것.(최소한 중학교까지-그 이후로는 개인적 경건을 가르치라.)

-일주일간, 해가 떠 있을 동안은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취미생활을 공유할 것.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는 신령한 일에 힘쓸 것.

3. 예수님이 생각하는 진짜 보물은 무엇일까?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를 보라.

-자연과 온 우주는 놀라운 디스플레이 화면 그 자체이다.

- 저장매체는 세포 하나의 DNA구조도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다.
- 우리의 비행기는 아직 새보다 훨씬 못하다.
- 우리의 멧은 아직 꽃보다 못하다.
- 우리의 에너지 활용은 아직 탐험하지 못한 곳이 더 많고 우리의 지식은 현재 태평양의 한 방울 물과 같다.

15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16 레바논은 빨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사40:15)

- 우리의 목적은 의식주 해결이 결코 아니다. 보물을 땅에 쌓느라 혈안이 되지 말라!
-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
- 우리의 목적은 사람 위에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 우리의 목적은 사람이 아닌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리는 것이다.
- 그러면 사람은? 그는 다스림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다.
- 마귀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다.
- 다만 우리는 악한 사람의 악과 대적해야 한다. (이세벨을 대하는 엘리야처럼)

